

의식적 기념물로서 정려의 건축적 특징 연구

-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eongryeo as a Conscious Monument

- In the Asan area -

○김민수* 김영재**
Kim, Min-Soo Kim, Young-Jae

Abstract

Jeongryeo is a building built to commemorate Confucian values. It was especially actively esta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most of the existing Jeongryeo were newly created in the 20th century. These Jeongryeo is a cultural heritage that perfectly corresponds to a 'conscious monument'. It analyzes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eongryeo in Asan and examines its properties as a 'conscious monument'.

키워드 : 정려, 의식적 기념물, 아산

Keywords : Jeongryeo, Ceremonial Monument, As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문화유산은 과거의 사건, 인물, 사회, 문화 등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최근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다양한 속성이 조명받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유산의 핵심 속성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념성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념'은 역사적인 의미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며 이를 미래 세대로 전달하여 영속하여 공시적·통시적으로 구성원이 속한 사회를 영속시키고자하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문화유산이 지향하는 존재 목적 및 기능과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미술사가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 1903)은 이러한 '기념물(Denkmal)'에 대해 "인간 특유의 개별 행위나 기량을 끊임없이 차세대의 의식에 남기고 존속시키려는 확고한 목적을 위해 세웠거나 제작된 작품"으로 정의한 바 있다.¹⁾

리글의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기념물은 다시 '의식적 기념물'과 '무의식적 기념물'로 구분된다. 특히 '의식

적 기념물'의 경우, 의식적 기념물이 가지는 기억의 가치는 타인 즉, 최초의 창조자에 의해 주어지며, 원작자의 의지에 의해 과거의 특정한 순간을 상기시키도록 제작된 작품에 한정된다고 서술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대상인 '정려(旌閭)'는 앞서 리글의 기념물의 분류 중 '의식적 기념물'의 개념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려는 전통시대 유교 국가에서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자체를 가리키며, 통념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축물과 구조물을 지시하기도 한다. 정려는 그 유산의 창조에서부터 기념 행위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그 기념 행위는 건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식적 기념물'인 '정려'가 최근 문화유산의 개념 범주 안에서 어떻게 주목받고 있으며 동시대적으로 기념되고 있는지를, 특히 건축적인 부분을 조명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의 정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분석을 통해 아산시 정려에 대한 조사목록을 작성하고 연혁과 현재 위치를 정리하였다. 이후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산시 정려의 건축적 특징을 정리하였고, 결론에서는 이를 유산에 대한 기념 행위와 연관지어 해석하였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석사과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kyjandy@nuch.ac.kr)

1) Alois Riegl, 기념물의현대적 숭배, 기문당, p.48, 2013.

2. 한국의 정표정책과 정려

정려(旌閭)는 충·효·열이 뛰어난 사람의 동네나 집 대문에 구조물을 세워 칭송하던 일을 말한다. 이를 달리 정표(旌表)정책이라고도 하며, 현재 정려는 정표정책에 의해 세워진 구조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정표정책의 시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시대에도 충신, 효자 등을 천거받아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보급과 백성의 교화, 사회 불안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표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가는 정표자(旌表者)에게 세금 면제, 관직 복귀 등 여러 혜택을 주었으며 그 중 정려는 가장 명예로운 포상이었다. 정려와 함께 관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후손들이 벼슬자리에 추천되기도 했다. 때문에 정려가 세워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정표가 많이 내려진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 직후, 세도정치기, 대한제국기 등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불안한 때였다. 특히 고종년간에는 정표정책이 문란해져 돈을 받고 정려를 세워주는 일이 빈번하여 다수의 정려가 세워졌다.²⁾

3. 아산시 정려 현황 및 건축적 특징

3.1 아산시 정려의 분포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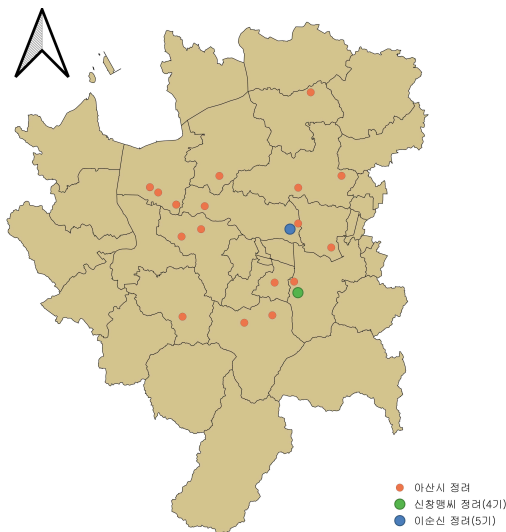


그림 1 아산시 지역별 정려 분포도

『아산시지』(아산시청, 2016),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문화재청, 2023) 등 자료를 참고했을 때, 충청남도 아산시에는 31기의 정려가 확인된다.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했을 때 아산 시내에는 확인되지 않고 전부 외곽 지역에 위치한다. 31기의 정려 중 ‘효부 양주조씨

정려’, ‘효자 맹사성 정려’, ‘효자 맹흥규 정려’, ‘효자 맹희도 정려’ 4기의 정려가 하나로 모여있고, 현충사 내에 위치한 ‘이봉상 충신정려’, ‘이순신 충신정려’, ‘이완 충신정려’, ‘이제빈 효자정려’, ‘이흥무 충신정려’ 5기의 정려가 하나로 모여있다. 또한 ‘임태춘 효자정려’가 2019년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완전히 멸실되면서 정려 건물의 개수로 셋을 때 아산시에는 총 23기의 정려가 남아있다.

표 2 아산시 정려 현황 조사표

명칭	정표시기	평면	지붕	초석	공포	단청
열녀 경주배씨 정려	1890	1x1	팔작 겹처마	장초석	익공 다포	모로
열녀 평산신씨 정려	1848	1x1	팔작 겹처마	자연석	익공 다포	모로
효부 동래정씨 정려	1736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효자 김익생 정려	1405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금모로
효자 전효원 정려	1841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다포	가칠
열녀 동래정씨 정려	1681	1x1	맞배 겹처마	주초석	익공	모로
열녀 안동권씨 정려	x	1x1	맞배 홀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열녀 여흥민씨 정려	1637	1x1	팔작 겹처마	장초석	익공	가칠
열녀 청송심씨 정려	1637 ~1649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이태연 효자정려	1891	1x1	팔작 겹처마	장초석	다포	모로
임태춘 효자정려	1843			멸실		
채동고 효자정려	1855	1x1	맞배 겹처마	초석+ 장초석	익공	금모로
효부 의령남씨 정려	1822	1x1	맞배 홀처마	자연석	민도리	백골
효자 강봉수 정려	1674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효자 강인수 정려	1605	1x1	맞배 홀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효자 김현 정려	1675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금모로
효자 안일관 정려	1891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효자 정수징 정려	1854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금모로
열녀 전주이씨 정려	1859	1x1	맞배 홀처마	자연석	민도리	가칠
효자 강리기 정려	1859	1x1	맞배 홀처마	자연석	익공	가칠
열녀 해남윤씨 정려	1808	1x1	맞배 홀처마	장초석	익공	가칠
효부 경주최씨 정려	1893	1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가칠
효부 양주조씨 정려	1665					
효자 맹사성 정려	1399	4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효자 맹흥규 정려	1830					
효자 맹희도 정려	미상					
이봉상 충신정려	1728	5x1	맞배 겹처마	장초석	익공	모로
이순신 충신정려	1604					
이완 충신정려	1704					
이제빈 효자정려	1840					
이흥무 충신정려	1756					

2) 안선호, 조선시대 정려 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2001

정려의 유형으로 나뉘었을 때, 열녀 정려가 8기, 효부 정려가 4기이다. 효자 정려는 15기로 아산시 정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충신 정려는 4기로 모두 이순신 장군과 그 후손들의 정려이다. 또한 23기의 정려는 모두 정문이나 홍살이 아닌 정려각의 형태이다.

표 3 아산시 정려 위치 및 입지

	마을 입구	마을 안	마을 밖	계
평지	3	7	2	12
언덕 위	1	1	1	3
언덕 앞	2	3	3	8
계	6	11	6	23

정려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잘 보이는 장소에 지어진다.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을의 입구, 마을 내부, 마을 외부로 나눌 수 있다. 마을 내부에 지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려 주변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평지, 언덕 위, 언덕 앞의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마을 내부의 평지에 위치한 평지형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 경우 마을회관이나 정자나무 등 마을의 중심이 되는 시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사례가 가장 적었는데 이 경우 마을과 떨어져 있거나, 마을 내에서도 외진 곳이라도 인도에서 정려가 잘 보이도록 위치하고 있다. 언덕 앞에 지어진 경우 숲이나 작은 언덕을 배경으로 하여 정려가 자리 잡고 있다.

3.2 아산시 정려의 건축적 특징

표 4 아산시 정려 평면형태 분류

분류	기본형	병렬형	다칸형
예시			
개수	17	4	2

정려는 평면 형태에 따라 크게 기본형, 병렬형, 다칸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3기 중 17의 정려가 기본형에 해당하고, 두 쌍의 정려가 병렬형, 2기의 정려가 다칸형에 해당한다.

기본형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일반적으로 정표자가 1명일 경우 나타나는 형태이다. 아산시는 17기의 정려가 기본형에 해당한다.

병렬형 정려는 기본형 정려 다수를 옆을 지어 배치하는 형태이다. 정표자가 한 집안이면서 2인 이상이고, 정려 건물에 격을 다르게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아산시에서는 ‘열녀 전주이씨 정려’와 ‘효자 강리기 정려’, ‘열녀 해남윤씨 정려’와 ‘효부 경주최씨 정려’가 각각 2기씩 두 쌍이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두 사례 모두 같은 집안 인물의 정려를 함께 배치하였으며, 지붕 형태나 세부적인 의장을 통해 격의 차이를 주고 있다.

다칸형의 정려는 정표자가 한 집안이면서 2인 이상이고 한

건물에 현판이나 비석을 모실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아산시 정려 중에서는 신창맹씨의 4인과 이순신 장군 집안의 5인 정려를 모아놓은 다칸형 정려가 있다.

초석은 화강석을 다듬은 초석이 가장 많으며 자연석 초석은 4건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화강석 초석은 대부분 길이를 길게 다듬어 기둥처럼 설치한 장초석 형태이다. 초석의 평면 형태 또한 원형보다 육각이나 팔각 등 다각형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초석을 얇게 깔고 그 위로 장초석을 올린 사례 또한 확인된다. 기둥은 ‘효부 의령남씨 정려’ 1기만 사모기둥을 사용한다. 이외 22건의 정려는 모두 원주를 사용한다.

공포는 대부분 정려가 익공 구조이다. 공포의 조각 양식은 운공형, 쇠서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정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익공 구조의 정려 중 2기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다포식 건물이다.

앞서 언급한 ‘효부 의령남씨 정려’의 경우 기둥이 사모기둥이면서 공포가 없는 민도리 형식의 정려이다. 민도리 형식은 단 2기로 그 수가 적다. ‘이태연 효자정려’는 유일하게 다포이면서 출목형 공포 구조이다. 23기의 정려 중 가장 평면 규모가 크고 지붕 내밀기 또한 깊다.

표 5 아산시 정려 벽체 양식 분류

	홍살	홍살+심벽	홍살+조적	홍살+심벽+조적
개수	12	6	4	1

벽체는 23건의 정려 모두 홍살을 설치했다. 벽체 4면은 모두 홍살로 두르거나, 홍살과 심벽 혹은 조적벽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확인된다.

홍살과 벽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6기의 정려가 일반적인 심벽을 사용하였다. 4기의 정려가 와편이나 현대식 벽돌을 쌓아 만든 조적조 벽을 홍살과 함께 설치했고, 1기의 정려가 홍살, 심벽, 조적벽을 함께 사용했다. 조적벽의 경우 의장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표 6 아산시 지붕 형태 분류

	팔작 겹처마	맞배 겹처마	맞배 홑처마
개수	4	13	6

지붕 형태는 대부분 정려가 맞배지붕에 풍판을 설치한 형태이다. 19기의 정려가 맞배지붕이며 그 중 6기가 홑처마이고 나머지는 겹처마를 달았다. 4기의 정려가 팔작지붕이며, 팔작지붕인 정려는 모두 겹처마를 달았다.

표 7 아산시 정려 단청 양식 분류

	금모로	모로	가칠	백골
개수	4	12	6	1

전통건축에서 단청은 목재를 외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의장을 위해 칠해진다. 단청은 그 화려함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칠단청, 굿기단청, 모로단청, 금모로단청, 금단청으로 분류된다. 향교나 서원 등 유교건축에서 단청은 일반적으로 장식에 없는 가칠단청이 많이 사용된다.

아산시 정려는 일반적인 유교건축의 단청 장식과는 다르게 대부분 화려한 단청이 칠해져 있다. 22기의 정려가 가칠 이상의 단청 장식을 하고 있고, 그 중 16기의 정려가 모로 단청을 칠했다. 4기의 정려는 모로 단청에 더해 목부재 중앙부에 장식을 추가하는 금모로 단청으로 장식하고 있다. 또한 창방이나 기둥, 공포 등 주요 목부재 외에도 소로, 개관 등 작은 부재에도 단청을 칠해 의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효부 의령남씨 정려’는 예외적으로 아무 단청 장식을 하지 않는 백골 상태의 정려이다.

4. 결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산시 정려의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려는 주로 평지이면서 마을 입구나 마을 중심에 위치한다. 마을에서 벗어나더라도 길가에 가까운 언덕 위나 언덕을 배경으로 하는 등 시선을 받기 쉬운 장소에 세워진다.

평면 형태는 정면 1칸에 측면 1칸이 기본이나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의 정표자가 나왔을 경우 병렬형이나 다칸형의 형태로 정려가 세워지기도 한다.

기단, 초석, 벽체, 공포, 지붕 등 정려의 구조부는 유교건축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의장적 요소를 보인다. 초석은 대부분 다각형의 장초석이고, 벽체는 의장 효과를 위해 현대식 벽돌이나 와적을 쌓는 사례가 있었다. 공포는 대부분이 익공식이었고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초각을 한 사례가 많았다. 지붕은 대부분이 맞배지붕이었으나 전체 23기의 정려 중 6기를 제외하고 전부 겹처마를 달았다. 정려의 의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단청이다. 정려가 유교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정려가 가칠단청보다 화려한 모로단청 및 금모로 단청을 칠해 장식하고 있다.

아산지역의 정려 건축의 특징을 통해 볼 수 있는 현대적 유산적 가치 인식과 기념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현존하는 정려의 정표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졌으나, 정려 자체는 대부분 소실되어 20세기를 전후로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정표 자체는 ‘의식적 기념물’로서 조성되었지만 정려의 건축은 이러한 ‘의식적 기념물’을 둘러싸고 벌어진 현대적인 기념 행위의 일종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아산지역의 정려는 대부분 20세기를 전후로 새롭게 지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입지하고 있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전통시대의 최고급 단청 및 의장 요소로 구성·장엄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기념 행위는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정려 자체의 진정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최초의 설립 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아산시에 존재하는 정려가 가지는 건축적인 특징은, 정려의 정표자와 정려가 속한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물리적 대상이 멸실된 전통시대의 가장 최고급의 의장 요소를 채용하였을 뿐, 정려라는 건축 유형의 전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다만 이는 물리적인 유산적 가치 인식에 있어, 물리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진정성에서는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현대에서 행해진 이러한 정려 건축 행위는 정려라는 ‘의식적 기념물’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정려라는 유산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가치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알로이스 리글『기념물의 현대적 숭배』, 기문당, 2013
2. 아산시청, 『아산시지』, 2016
3.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23
4. 안선호, 조선시대 정각 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